인천주보

제2863호
2025년 1월 19일 | 연중 제2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제물포 성 베드로 성당〉, 1976년 설립

입당송 |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62,1-5

화답송 | 시편 96(95),1-2ㄱ.2ㄴ-3.7-8ㄱ.9와 10ㄱㄷ(◎ 3 참조)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주님께 드려라, 뭇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

○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제2독서 | 1코린 12,4-11

복음 환호송 | 2테살 2,14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복음 | 요한 2,1-11

영성체송 |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이주의 **녹색순교** 친환경 운전-자동차를 가볍게, 트렁크를 비우기

소리주보 QR

카나의 혼인 잔치

이 혼인 잔치 장면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잔치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혼인식과 같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만 체면이 서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성모님은 아들인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머니를 힐책하는 듯 들립니다. 그럼에도 성모님은 일꾼들을 불러 단호하게 일러둡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성모님의 말씀은 기적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혼인 잔치의 일꾼들뿐 아니라 복음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가르치는 것도 성모님의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현존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듯 대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힘을 신뢰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 사건에서 참된 신앙이시며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요한 2,4)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리라는 것,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예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어 올려지실 때' 성모님은 예수님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나의 혼인 잔치 기적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전조가 됩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는 우리를 위한 선물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께서는 혼인 잔치의 일꾼들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김재영 요셉 신부
장기동 본당 주임

믿음의 촛불 밝히기 2_인물 편

미래사목연구소 편집부

오늘은 믿음의 모델들을 만나, 어떻게 믿음이 그들의 생애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해 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만나러 가 볼까요?

첫 번째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안간 나타나시어 ‘네 고향과 집을 떠나, 내가 보여 줄 땅으로 떠나라.’(창세 12,1 참조)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는 말씀이 따르기 쉬웠을까 싶지만, 아브라함은 하느님 말씀대로 순명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땅도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된다는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며 아들 이사악을 보내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하느님의 약속 말씀이 조금은 의심스럽고 허황되게 들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가라면 갔고, 또 하라면 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은 바로 이사악이 12세 되던 때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요. 바쳐야 할 제물이 보이지 않자, 아들 이사악이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창세 22,8)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후 그는 물론 후손들까지 주님의 복을 한껏 받게 되고, 그의 이름에는 늘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다음은 ‘방패’의 믿음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투 현장을 상상해 볼까요? 거인 골리앗이 기세등등하게 서 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 대적하지 못하는 중에, 소년 다윗이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투 경험도 없었고 갑옷과 무기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굴하지 않는 믿음’과, 어찌 보면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두려움 없는 용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 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 주실 것입니다.” (1사무 17,37),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1사무 17,46) 다윗의 확고한 믿음과 용기가 느껴집니다. 갑옷도 무기도 없는 다윗은 평소 자신에게 익숙한 스타일대로 돌멩이 하나를 던지고, 그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합니다. 작은 소년이 한 방으로 거인 골리앗을 보내 버린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든든하게 지켜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에, 이런 용기와 기세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후 하느님 체험을 수도 없이 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시편 28,7)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보여 준 ‘야훼 이레’ 믿음과 다윗의 굴하지 않는 ‘방패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기대하는 순간이나 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인천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1

2

3

4

5

6

7일(화)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이번 사제·부제 서품식에서는 교구 부제 신규환 루도비코, 황호준 시몬과 교구 신학생 김지훈 마르코, 이윤선 비오, 방인규 요셉, 이진우 베드로, 전지웅 베드로, 이현우 마르코가 각 사제와 부제로 수품되었다.

미사는 서품 후보자 호명 및 선발, 부제로 선발된 이의 서약, 부제 순명 서약, 사제로 선발된 이의 서약, 사제 순명 서약, 성인 호칭 기도, 안수와 부제 서품 기도, 부제복 수여 및 착의, 복음집 수여, 기도 청원, 안수와 사제 서품 기도, 제의 수여 및 착의, 손의 도유, 빵과 포도주 수여, 평화의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고, 새 사제와 부제들은 직무를 수락하는 서약을 통해 낮은 자세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였다.

> 새 사제 신규환 루도비코는 부평4동 본당 보좌,
> 황호준 시몬 사제는 서운동 본당 보좌로
> 1월 20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1. 서품자 호명 및 선발 2. 부제 순명 서약 3. 사제 순명 서약 4. 성인 호칭 기도 5. 안수와 사제 서품 기도
6. 제의 수여 및 착의 7. 손의 도유 8. 빵과 포도주 수여 9. 평화의 인사 10. 새 사제 강복 11. 새 사제·부제 단체사진

· 사진 촬영 교구 신학생

새 사제 첫 장엄 미사

교구 홍보기자 장창규 루도비코, 최옥희 안나

12일(주일) 11시 가좌동 본당(주임 김준석 멜키올 신부)에서 교구 사제단, 신학생,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환 루도비코 새 사제 첫 장엄 미사가 봉헌되었다. 강론을 통해 한관우 가누토 신부(영흥 본당 주임)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좌동 성당 20년 만에 새 사제가 탄생하였다”며 기쁨을 표하였다. 또한 “암흑에서 빛을 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사제이며, 죄인들은 사제를 통하여 새로운 곳으로 인도된다”며, “기도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는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새 사제를 격려하였다.

같은 시각, 숭의동 본당(前 주임 임현택 안드레아 신부)에서는 12명의 사제, 새 사제의 가족과 친지, 신학생,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호준 시몬 새 사제 첫 장엄 미사가 봉헌되었다. 강론은 황호준 신부의 추천 신부인 조영승 빅토리노 신부(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가 하였으며, 사제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라고 전하며 황호준 신부를 격려하였다. 미사 중 꽃다발 증정과 영적 예물 증정, 신학생 축가, 황호준 신부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였다. 황호준 신부는 “숭의동 본당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사제 생활하는 데 큰 힘으로 삼아, 주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사제 생활을 해 나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새 신부는 안수를 통해 기도해 준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미사 후 음식 나눔 잔치가 이어지면서 새 사제의 탄생을 축하하였다.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도종범 스테파노 2010.1.21. 선종

| 교구 안내 | 사제 인사 발령

1월 20일자로 발령

이재규	성직자국	▶	겸 주교대리 수도회 담당
케네스 오리안도	꼰솔라따선교수도회	▶	상1동(보좌)

교구청

노인대학 교리교육
일시: 3/10~6/9 매주(월) 10:00~12:00
장소: 교구청 청소년센터 / 비용: 소정액
교육: 노틀담 교리교재연구소
문의: 032-761-0618

제주 4.3 평화기행
일시: 5/31~6/1 [1박 2일] 제주공항 집결 및 해산
대상: 19~45세 신자
문의: 032-765-6970 정의평화위원회

교육 | 미사

인천ME 467차 주말
일시: 2/21(금)~23(주일) 강화 갑곶성지
문의: 032-761-1015

청년들을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온라인)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2/11부터 매주(화) 10:30, 19:40 [6주]
장소: 온라인 Zoom / 접수: 2/6까지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청년
문의: 02-333-9898 한국CLC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2/14(금)~15(토), 3/8(토)~9(주일)
[3박 4일] 2/17(월)~21(금)
[4박 5일] 2/26(수)~3/1(토)
[8박 9일] 2/3(월)~11(화) 신학생, 일반
3/13(목)~21(금)
[40일] 4/21(월)~5/30(금)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
일시: 매주(금) 21:00~(토) 3:00
강사: 전국 유명강사
셔틀버스: 19:00 출발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9:20 출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9:40 출발 청주교구 교구청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고해성사, 상담)
일시: 1/20(월) 13:00~16:30(범죄피해 가정기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1, 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00~16:00
1/21 김종국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미사
(성시간, 연도, 위령 미사)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가정선교회 2월 피정
일시: 12:30~16:50 가톨릭회관 1층, 3층 강당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2/1(토)
·성가정 영성 피정: 2/12(수)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2/15(토)
강사, 자세한 내용은 「가정선교회」 카카오톡 채널 확인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2025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시: 2/7~9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상: 건강한 고1~35세 미만 남성
접수 마감: 1/31
문의: 010-6221-3520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일시: 2/7~10, 21~24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 포함: 2/8~10, 14~16, 22~24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3/1~4, 9~12,
4/2~4, 12~15, 27~30,
5/4~7, 26~29, 6/1~4
생태순례: 3/17~19, 22~24, 28~30, 4/7~9
문의: 064-756-6009,
02-773-1463(제주자연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눈꽃산행: 2/7~9, 21~23, 25~27
일시: 3/1~3, 8~10, 13~16(추자도 포함),
3/18~20, 23~26(추), 29~31, 4/1~3, 5/4~6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14(금)~22(토), 3/14(금)~22(토)
장소: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문의: 010-3340-0201

성녀 소화 데레사 영성 강의 및 신심미사
일시: 1/25(토) 10:30~12:40
장소: 답동 사회사목센터 지하 강의실
지도: 조운용 엘리야(가르멜 수도회) 신부
대상: 일반 신자들
문의: 010-2411-1897

교구 체나콜로 미사
일시: 1/20(월) 작전동 성당
12:30 찬미,
13:00 성체현시 안에 체나콜로 기도,
14:00 미사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메세지 책

하느님 자비의 사도모임(천주교 사도직 팔로티회)
강의, 성시간, 미사
일시: 1/21(화) 14:00~17:00
장소: 답동 사회사목센터 지하
문의: 010-3809-0200

1월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21(화) 14:00 도화동 성당

장애인연합회 월례미사
일시: 1/25(토) 11:00 답동 사회사목센터
문의: 032-761-3992

노틀담 첫영성체 교리서 일일연수
일시: 2/1(토), 3(월) 서울 노틀담 교육관
다음카페 「노틀담 첫영성체」 검색
문의: 010-3829-7667

모 집 | 일 반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드림로 472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문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갈산동 본당 교중미사 지휘자 모집
자격: 교중미사 지휘경력자
문의: 010-9154-9325

교구 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가톨릭 전례음악 및 성음악을 사랑하는 남성 교우
남성4부(테너1,2 / 베이스1,2 각 0명)
연습: (화) 20:00 가톨릭음악원 전례음악연구소
문의: 010-2389-5904 최현수 루도비코

25년도 한길(야학)고 교사 및 신입생 모집
야학! 만학의 꿈을 함께 일궈요(고졸 검정고시 준비)
·신입생 모집: 2년제, 나이 제한 없음, 학비와 교재 무료
·신임교사 채용: 국어, 미술
장소: 주안5동 성당
문의: 010-8348-0998 교감

25년 상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원서접수: 25/1/6(월)~24(금)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장소: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 http://www.casm.co.kr

이콘연구소 23기 신입생 모집
이콘제작 및 연구 [3년 과정]-만 65세 미만 대상
실기시험: 2/22(토), 24(월) 10:30 / 개강: 3/4(화)
장소: 가톨릭출판사 신관 6층(서울 중구 중림로27)
지도: 장긍선 예로니모 신부
문의: 02-313-9973

인천교리신학원 25년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인천교리신학원 홈페이지 참조
장소: 인천가톨릭대학교 송도캠퍼스 위치
문의: 032-830-7137

교구 가톨릭스카우트 모집
신앙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스카우트 활동
대상: 유치부~대학생까지 대장, 대원 모집
문의: 010-2484-0072

예수성심 인천친교회(재속)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남·녀 교우
문의: 010-8752-9566

순 례 | 기 타

성심 해외 성지순례
성모발현 성지순례: 베트남 라방, 짝께우 [5일]
일시: 3/31 출발(대한항공)
김현우 바오로 신부 동행
문의: 010-5909-5997

전국167, 제주 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120만원
과달루페 성모-멕시코, 페루 성지순례: 720만원
문의: 010-4239-1929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 성지순례
3/1~4 전주11-광주4
3/15~ 부산8-마산6
4/23~27, 7/5~9 울릉도, 독도
출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5/3~18 동유럽(체코-폴란드-메주고리예)
문의: 010-3807-1784

가톨릭 해외 성지순례
3/17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3/17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4/22, 5/13 이탈리아 일주 [11일] 415만원
5/3 동유럽 발칸 3개국 메주고리예 [15일]
5/19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6/5 세계 울뜨레야 로마 대회 참가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4/24~5/5 성모 발현지 520만원
문의: 010-7374-3217

가톨릭신문 해외 성지순례
3/7 희년 이탈리아(대한항공) [12일] 455만원
4/1 산티아고 도보순례 [12일] 499만원
4/5 희년 이탈리아(독일항공) [12일] 43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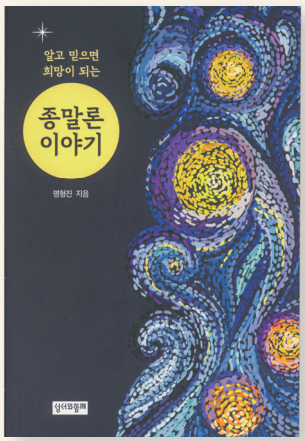
라파엘 해외 성지순례
4/7 다낭 성지순례 [5일] 155만원(아시아나)
4/21 특선 이탈리아 [11일] 499만원(대한항공)
4/21 나가사키 [4일] 139만원(아시아나)
4/28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495만원
4/28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39만원
5/12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 [13일]
문의: 02-778-8565

성 소 모 임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일시: 1/24(금)~26(주일) 14:00 그 외는 전화
장소: 서울 보문동 수녀원
대상: 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미리 연락)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모 성심을 통하여 천주성삼께
영광을 봉헌하고자 하는 수도 성소자 꿈나무
청소년, 청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010-5195-3217 성소부

영성쌓기



알고 믿으면 희망이 되는
종말론 이야기

"종말은 구원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1베드 3,15)

명형진 신부 지음
성서와함께 | 17,000원

신앙의 중심에 있는
생태 환경

자연세계에 관한 그리스도론적, 성령론적 관점을 이야기하다.

데니스 에드워즈 신부 지음
이다한 신부 옮김
도서출판 작음 | 18,000원